

'남관화백 작품' 세계에 알린다

www.namkwan.com

청송서 광고기획사 운영 조위래씨, 홈페이지 개설 '화제'

청송 출신인 남관화백(1911~1990)의 작품세계와 인생여정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 한 지역민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청송읍에서 광고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위래(48)씨는 "청송출신으로 예술적 혼을 발휘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남관화백의 모든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특히 예술의 도시 과천시에서 인정을 받은 화가였다.

청송군 부남면 구원리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가 성장했다.

1935년 동경 다이에야오 미술학교를 졸업 광복직후 귀국해 서울에 정착하면서 1947년 이태대, 이인성, 이규상 등과 조선미술문화협회를 결성 작품 활동을 해오다 1949년 방북 국

제비엔날레에서 피카소, 뷔페, 다피에스 등 세계적인 거목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해 화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그의 예술이 지난 독자성인 서구적 모더니즘 방식과 동양의 옛 문명을 잘 융화해 표현하며 가시적 현상보다 인간내면의 진실을 표출하는 것에 무게를 둔 작품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현재 그의 작품은 과리풍과두센터, 과리시립미술관, 북성부르크국립박물관, 트리노국제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남관화백 홈페이지는 www.namkwan.com이며 국립현대미술관에 남관의 공식사이트가 있고 군 홈페이지에는 그의 연보, 소개 등 작품 1천여 점이 수록되어 있다.

청송=윤성근기자 ysk@idaegu.co.kr

잉카문명 발상지에 안동문화 소개



안동시가 잉카문명의 발상지인 페루공화국 쿠스코시와 자매결연을 갖고 동양과 남미 문화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김희동 안동시장과 유석우 안동시의회 의장 일행은 7일 페루 쿠스코시(인구 34만)를 방문, 남미 안데스 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문화유산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사진) 안동시는 지난 2007년 6월 쿠스코시에 자매도시교류 의정서를 전달한데 이어 12월 안동시의 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2월 교류협약서를 체결 후 조인식을 갖게 됐다.

이번 방문에서 쿠스코시 아르투로 가르시아 쿠스코시장은 한국의 문화와 안동의 하회마을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하회별신굿발놀이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동시-페루 쿠스코시 자매결연

동양과 남미 문화교류의 장 마련

이태라 시는 페루시민들에게 안동의 탈문화와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탈출공연을 선보이는데 이어 세계의 탈을 모티브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페루 민속공연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쿠스코시에 주재한 일 카인들의 공중도시, 맛주파주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 계적인 유적지로서 이는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눈앞에 둔 하회마을의 보존과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스코시는 일본 교토, 미국

뉴저지, 그리스 아테네, 러시아 모스크바, 북한 개성 등 21개 세계 유수의 고도문화유산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안동시의 자매도시가 됐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쿠스코시장은 "800년의 역사를 가진 안동 하회마을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목신 청에 대해 반드시 등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양 도시의 활발한 문화적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동=영명기자 ky5810@idaegu.co.kr

포항제철소 1후판공장 'DS Knife 교체 자동화설비' 준공

"근무환경 개선...직원들에 감사"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후판공장의 'DS(Dividing Shear) Knife 교체 자동화 설비'와 관련, 두 달 동안 신설비를 사용한 현장 직원들이 설비부하 담당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작업 현장에 메아리치고 있다. (사진)

1후판공장 'DS Knife 교체 자동화설비'는 1972년 1후판공장 준공 이후 37년간 지속되어 온 전단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무자 사업이었으며, 기존에도 몇 차례 개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해 끝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안전설비혁신 팀과 후판부 설비개선 팀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재도전에 성공했다.

개선된 Knife 교체 작업현장은 더운 날씨엔 내부온도가 60℃를 넘었으며, 겨우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매주 금요일이면 1시간 이상 나이프 해체 및 조립 작업을 해야 했다.

이런 작업공간이 'DS Knife 교체 자동화설비' 준공으로 Knife 인입·인출을 Changing Car로 자동화했다. 따라서 Knife고정도 Clamping Cylinder로 자동제결 할 수 있어 더 이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라졌으며, 근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앞으로 안전과 함께 나이프 교체 시간이 종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설비 및 작업자의 부하가 경감된다. 안전설비혁신팀 차갑업 팀리더는 "설비부하는 작업자의 효율적인 작업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국은 직원을 위한 투자이다"며 "이번 준공으로 현장직원들이 작업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뿌듯합니다"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ish@idaegu.co.kr

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들

철곡 정보화마을 벤치마킹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 18명이 새마을연수로 철곡군 정보화마을을 찾아 한국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했다.

7일 경문대 새마을아카데미의 소개로 철곡군 정보화마을을 찾은 이들 일행은 "한국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과 기술을 배워 모잠비크에 보급하고 해외 자원의 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이번이 참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행은 철곡 정보화마을에서 경문대학교 학생수(51) 주민위원장의 지도로 현장체험을 가졌다. 철곡=신영길기자

경북 지체장애인협회와 자매결연 협약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회장 강경대)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회장 이영범)는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각각 기관단체장과 양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서와 협약패를 교환하면서 결연기념으로 사무실 책장 1식을 증정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회장 강경대)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의 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사회복지 공무원 7명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줬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상주가 바르게 살라고 서로 돕고 상부상조 하는 진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이재수기자leejs@idaegu.co.kr

송금리 농촌체험마을

민박시설 준공식 개최

경도군은 8일 오전 화양을 송금리 경포화원에서 이종근 경도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금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민박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은 올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송금리 마을에 사립 2여원을 들여 경포화원과 송금리 민박시설을 구축했다. 위안타널내에 외인체험장 조성 및 주차장, 화장실, 마을 등산로 등도 정비했다. 또한 마을 홈페이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송금리민박시설 준공식에는 이종근 군수, 최정식, 마을 등산로 등도 정비했다. 또한 마을 홈페이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경도=이인호기자 ih3001@idaegu.co.kr

정보 공유...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천상의-대구銀, 김천 CEO포럼 개최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8일 김천 탑재에서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김천 CEO포럼'을 개최했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윤용희 김천상의 회장, 하춘수 대구은행장, 이철우 국회의원(김천·한나라당), 박보성 김천시장 등 유관기관장과 도의원, 시의원과 관내 기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짐했다.

윤용희 김천상의 회장은 "김천 출신인 하춘수 대구은행장의 지역 사랑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CEO들의 정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

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

사회봉사팀명 대상자

수리시설 투입 교류협약

한국농어촌공사 의성지사(지사장 전만우)와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은 9일 농촌봉사회의실에서 사회봉사팀명 대상자들을 수리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업무교류 협약을 가졌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사회봉사팀명

대상자들을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 관내 용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물 관리에 투입, 사회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것.

의성=김병태기자btkim@idaegu.co.kr





남부지방산림청

山林災害

山 林 災 害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산불, 병해충, 수해로 인한 산림피해 한 순간의 방심으로도 소중한 기온 숲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국민이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산림생태계까지 위협받음으로써 소중한 숲을 지키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숲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